

전북 전국소년체전 12위

급21·은23·동37 획득...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 바둑·자전거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대이상 선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라북도 선수단이 목표했던 순위보다 한단계 높은 12위(급21, 은23, 동37)로 기본 좋게 대회를 마감했다.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 전북도는 선수 738명과 분부인원 60명, 경기인원 262명 등 총 1,115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작년에 열린 44회 소년체전에서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쳤던 전북선수단은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12위, 금메달 18개 획득을 목표로 올 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왔다.

특히 전북체육회는 금년 대회를 위해 도 교육청의 협조 하에 특별훈련비를 지원해 선수단 사기를 진작시키는 가하면 대회 중에는 선수트레이너 10명을 현지로 파견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힘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회 초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육상종목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둬 우려의 눈길을 받았지만 대회 중반으로 접어들며 유도, 바둑, 자전거, 양궁, 체조, 태권도, 요트, 근대5종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대이상의 선전을 펼쳐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많은 종목 중에서도 유도는 무려 6개의 금메달과 6개의 동메달을 전북의 품에 안겨 최다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다.

체조의 조원빈(전북체육) 선수는 개인종합부부와 마루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전북 선수단 중 유일한 다관왕이 됐고 배드민턴의 김태립(봉동초) 선수와 바둑의 강창호(백산중) 선수는 각 종목의 최우수 선수에 선정돼 기쁨을 더했다.

또한 육상의 유규민(김제중) 선수는 세 단뛰기에서 15.11m를 뛰어 역대 대회 신기록을 경신했다. 기대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대회 전체 36개 종목 중 소프트볼, 트라이애슬론 종목 등 10개 종목에서 선수가 전혀 없어 출전하지 못한 앓은 선수층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또한 계속 제기된 문제였던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과 다메달 종목인 역도, 양궁, 롤러와 같은 중요 종목들의 우수선수 부재 역시 전북체육의 발전을 위해 시·군 지자체와 교육청의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다.

기대이상의 성적으로 도민들을 기쁘게 한 이번 소년체전을 개기로 도내 학교체육이 한 단계 수준 높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기자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라북도 선수단이 목표했던 순위보다 한단계 높은 12위(급21, 은23, 동37)로 기본 좋게 대회를 마감했다.

군산산복중 레슬링부 소년체전 통해 강자로 부상

군산산복중학교 교장 김성균 레슬링부(감독 심원준 코치 조성국)가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중학부 강자로 부상했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그레코로만형 60kg급과 50kg급에서 3학년 정용규 선수와 김운상 선수가 은메달을 63kg·50kg·46kg급에서 윤유민·고두영(3년) 선수와 소원(2년)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는 등 2개의 은메달과 3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2009년 창단된 산복중 레슬링부는 매년 각종 전국대회에 참석, 상위 입상을 놓치지 않았다.

주장을 맡아온 정용규 선수는 '코치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 많이 발전한 것을 이번대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며 '다음 대회에서도 더 나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동료들과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KBS2TV 월화드라마 '조들호'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극본 이항희, 김영찬·연출 이정섭, 이은진)가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막을 내린 '동네변호사 조들호' 마지막 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17.3%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21.7%, 18.0%로 더욱 높았다.

지난 3월28일 9.8%로 시작한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약자를 대표해 싸우는 변호사 '조들호'(박신양)의 활약을 통해 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합합으로 꾸준한 시청률 상승을 기록했다. 20회 동안 주인공 '조들호'로 드라마를 이끈 배우 박신양(48)은 소속사를 통해 "같이 정해져 있지 않던 마라톤을 끝낸 기분"이라며 "의미와 재미가 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대 방송된 MBC TV '몬스터'는 7.7%, SBS TV '태백'은 8.1%를 기록했다.

/이성주기자

EXID 데뷔 5년만에 첫 번째 정규앨범 '스트리트' 발표

멤버별 솔로, 유닛 등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로 13곡 실어

그들 EXID가 지금의 EXID를 만든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 무대에 다시 섰다.

지난 2014년 발표했던 '위아래'를 처음 선보였던 쇼케이스 장소다.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했던 '위아래'는 직캠 영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역주행 신화를 이뤘다.

1일 EXID는 같은 장소에 첫 번째 정규앨범 '스트리트(STREET)'를 들고 금의환향했다. 네 장의 디지털 싱글과 미니앨범 두 장을 거쳐 헛수로 데뷔 5년 만에 발표하는 첫 정규앨범이다. "과연 우리가 정규앨범을 낼 수 있을까(정화)하는 의문까지 가졌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2014년의 그 EXID가 아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떨리기도 해요. 긴장도 많이 되고요. 정규 앨범 한 장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한테 정말 의미 있는 앨범이 된 것 같아요"(LE). "수록곡 전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저희한테는 이번 앨범이 그래요"(정화)

새 앨범 '스트리트'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EXID만의 스타일로 스케치한 곡이다. 그동안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던 멤버별 솔로, 유닛 등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로 무려 13곡을 준비했다.

EXID의 프로듀서로 활약하는 멤버 LE가 처음으로 작사·작곡을 도맡은 곡 '네려 다출래'와 하나의 솔로곡 '헬로(Hello)', 다양한 음악 에능 프로그램으로 가창력을 인정받은 솔지의 솔로곡 '3%', 정화·혜린의 듀엣곡 '남남짬뽕' 등이 실렸다.

그중 타이틀 곡 'LEE'는 '위아래'로 메가 히트를 기록한 후 발표한 '이제와 핫핑크'로 이어졌던 자기복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한 곡이다. 그동안 중독성 있는 후크송을 선보였던 것과 달리 멜로디와 강한 퍼포먼스를 강조했다.

거짓말을 일삼는 남자에게 짜증, 의심, 분노, 슬픔, 미움 등 멤버별로 표현하는 감정표현과 단독 퍼포먼스, 등요 '숨바꼭질' 노래를 차용한 멜로디 라인인 포인트다. "사실 '핫핑크' 발표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꼭꼭 숨겨뒀다가 이제 발표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1일 그룹 EXID가 지금의 EXID를 만든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 무대에 다시 섰다.

랜데요"(LE). "이제 새로운 매력을 보여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혜니)
1일 낮 12시 '스트리트'를 발표한 EXID는

이날 MBC뮤직 '쇼! 챔피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성주기자

생활체육 통합 무주군체육회 출범

무주군체육회 창립총회가 1일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체육회 종무별 회장들과 6개 읍면 체육진흥회장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황정수 군수(이하 회장)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임원들과 감사를 선임했으며 체육회 규정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황정수 회장은 "통합체육회 출범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31개 클럽을 기반으로 생활스포츠 강군을 만들고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세계 태권도성지로 세우며 무주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토대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통합체육회로 출범한 무주군체육회는 황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감사, 그리고 28명의 대의원들로 구성이 됐으며 앞으로 무주군 체육발전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대회 개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무주군체육회는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공포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무주군 관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에 필요한 절차와 방안에 관한 심의·의결 과정을 진행하고 이날 창립총회를 갖게 됐다.

/무주=전문선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